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것 성경: 마태복음 5장
10-16절

Tag: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5:10-16)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연 어떤 복이 진짜 복일까?

흔히 생각하는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살고, 자식들이 잘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며 기본적인 것이다. 이 기본적인 복은 어찌보면 본능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사람이면 누구나 생존본능에 의해서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

그러나 결국은 고급스러운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 복은 무엇일까? 일단 복이란 좋은 것이다. 평안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며, 근육이 잘 발달된 건강을 뜻하는 것이고, 산업이 풍요로운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며, 보람있는 삶이며, 활기가 넘치는 것이며, 칭찬받는 것이며, 인정받는 것이다.

예를들면 요즘 유행하는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해 보자. 복에 굶주린 사람들은 소위 ‘묻지마 여행’이라는 것을 떠난다고 한다. 그러나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는 여행은 ‘가족여행’이다. 경제적 여유는 둘째로 치고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복스러운 것이다. 가족과 떠날 때에는 차라리 안가고 만다고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하는 여행이 ‘가족여행’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해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야 여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관광일 뿐이다. (트레블과 투어의 차이 travel, tour)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복은 왜 슬프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는 자들의 것일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는 복의 핵심, 즉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진짜 복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할 뿐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다.)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3류 드라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로미오와 줄리엣같이 애뜻하고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대부분 마지막은 막장 3류드라마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즉, 진짜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즉 본능적인 복에 대한 갈망 말고 진짜 만족을 주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평안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며, 산업이 풍요로운 것이며(거래),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며, 보람있는 삶이며, 활기가 넘치는 것이며, 칭찬받는 것이며, 인정받는 것 등)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혜적 의미로 사용된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뜻이다. 복 자체가 관계적이다. (내가 복을 낳았다, 내가 복을 만들었다. 내가 복을 사들였다. 내가 복을 팔았다 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내가 돈을 벌수는 있어도 내가 복을 벌거나 살수는 없다.) 복이란 사람과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복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고, 미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뷔페를 먹어도 소화가 안되고 즐겁지가 않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내고 희생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결코 필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대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가난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다.

가난이란 좋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느라 가난하게 된 자들을 말한다. 즉, 관계적인

가난을 뜻한다.

누군가 곤란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가난이다.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보라. 두 사람의 살림이 늘어 이제 분가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자 연장자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한다. 네 앞에 보이는 땅 중에서 네가 왼편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였다.

롯은 보기에 좋고 풍성해 보이는 땅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순순히 양보하였다. 이러기가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아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롯에게 양보하였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양보하였다. 게을러서 가난한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적인 가난이 복되다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이다.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쌀통)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란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란 뜻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사소한 것으로 각을 세우며 재미없게 살아간다. 그래서 소금처럼 녹아들어가는 희생이 필요하다. 내 소유가 사라지며, 나의 기회는 빼앗긴다. 그러나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문제가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새싹처럼 다시 살아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빛이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최악은 눈을 멀게 한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저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문명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tour보다는 travel이 더 낫다는 것을,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문명의 빛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것을 자랑하듯이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도 얼마든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푸는 선행은 빛과 같다. 의도적이고 계산적이고, 자만에 의한 선행이 아닌, 순전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행을 베풀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고, 전도이고, 하나님께 드러지는 영광이다.

<찬양예배>

제목 : 칼 바르트의 예정론 이해하기

성경: 로마서 9장 18-24절

Tag: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 이 사람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롬9:18-24)

*예정론은 사변이 아니고 복음의 총화이다.